

금호타이어, 인력 구조조정 “철회”

2월11일 4차협상 노조 수용여부 주목 ... 상여금은 800%에서 500%로

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에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해 노조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.

금호타이어는 2월11일 오후 임금단체협상 4차 본 교섭에서 노조가 반발하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고 비용 절감 방안으로 상여금 300%를 삭감하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.

기존에 1377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철회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현재 800%인 상여금을 500%로 줄이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은 시행하며 결원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도급화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.

금호타이어는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영상 해고 문제로 워크아웃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노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노조 관계자는 “회사의 제시안은 모든 비용을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며 조합원들의 급여가 40% 정도 깎이는 결과가 된다”며 “제시안 내용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노조의 입장을 밝히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2/11>